

민화에 나타난 십이지동물의 민속의식에 관한 연구

이종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박사과정

Study on Folklore Consciousness of Twelve Chinese Zodiac Animals Shown in Folk Painting

Jong kawn Lee

Dong 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사람은 본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열두 동물 중에 하나의 동물 “띠”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된다. 생활 주변에서 뿌리 깊게 지닌 “띠”의 문화와 이에 대한 민속학적 관점에서 민화에 나타난 십이지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아시아권의 민속 신앙과 감정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면서 상호 영향과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작성된 글이다. 연구결과 쥐라고 하는 동물은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하며 설화나 자연계에서 동반하고 있으며, 소라는 동물은 인류와 함께 더불어 공존하면서 인류의 문명과 같이하고 있다. 호랑이는 인간에게 벽사의 신으로 가장 두려우면서도 가까이하고 있다. 설화 속의 토끼는 인간에게 희망과 이상을 심어주고 있다. 상상 속의 용은 토속신앙의 깊은 뿌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농경문화와 인류의 수호신으로 자리하고 있다. 뱀은 대마도와 제주도에서는 인간을 지켜주는 해신으로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신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목문화에서의 말은 그들의 수호신으로 또는 신과의 영매자로서 유목사회의 기본으로 숭상되고 있었다. 고대 일본인들은 원숭이를 신성시하였으며 보물과 연관 지었다. 원숭이의 지혜를 빌리려는 인간의 욕구의 욕구가 담겨 있다. 닭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늘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길조로서 의미를 담고 있다. 개는 무속의 저승 설화에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메신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신앙되고 있다. 돼지 역시 인간과 공존하며 다산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십이지 동물은 민족 간에 의미는 다소 다를지 몰라도 인간과 함께 공유하며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신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People are destined to live according to the time and fate after they are born. Man is connected with the idea that is called the Chinese zodiac sign related to one out of 12 animals, regardless of one's thought. 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be a new turning point understanding the mutual influence and its changing process by catching the ethnic belief and emotion as well as its cultural background in the Asian Zone by investigating the meaning of the 12 Chinese zodiac shown in the folk painting from the viewpoint of folk lore including "Chinese zodiac sign" culture rooted in our daily lives. The animal 'Rat' has been lived well human beings accompanied by the fable or the nature, while the animal 'Ox' has been living together with human history. The 'Tiger' has been considered the 'Power retreating disease or a devil' to humans, which is the most frightening but near at hand. The 'Rabbit' in the fable is inculcating hope and ideals to humans. The imaginary 'Dragon' is rooted in the deep national belief, which is seated as 'Guardian god' of farming culture and mankind, while the 'Snake' is playing a role in protecting humans as the 'Sea God' in Tsushima and Jeju Island, and has been believed and followed in the deep mind of humans. The 'Horse' in the nomad culture has been adorned as the basic creature of nomadic society in the character of a psychic medium between the human and god or their 'Guardian god'. The ancient Japanese regarded 'Monkey' as holy, being connected with treasure. It infers a human's desire to borrow wisdom from 'Monkey'. 'Chicken' includes the meaning of a lucky sign connecting the sky and the human world by arranging together with humans. The 'Dog' is believed and followed as performing the function of a messenger connecting this world with the afterlife in the next world tale of shamanism. The 'Pig' also lives well with humans, being interpreted as fecundity. Although the meaning of the 12 Chinese Zodiac animals has ethnic differences, all of them have been shared with humans, rooted in the human mind, being believed, and followed in human lives.

Keywords : Twelve Chinese Zodiac Animals Folk painting. Folklore Consciousness

*Corresponding Author : Jong kawn Lee(Dong 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Tel: +82-10-5491-7314 email: jh0063@hanmai.net

Received April 27, 2016

Revised (1st May 23, 2016, 2nd May 31, 2016, 3rd June 1, 2016)

Accepted June 2, 2016

Published June 30,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열두 띠의 文化’는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유형 또는 형태로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 起源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는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이 ‘열두 띠 文化’의 起源을 일반적으로 後漢 時期로 규정하고 그 樣相에 대하여 논의하여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기를 전후로 漢나라이전 시기의 열두 ‘띠 동물’이 기록된 ‘簡片’이 발견되면서, ‘열두 띠 동물’의 起源時期을 再考하게 되었다. 또한 陰陽五行說은 陰陽說과 五行說의 결합으로, 春秋戰國時期 제나라의 鄒衍(BC340~BC260)에 의해 하나의 이론 체계로 제정립되었다는 것이 10天干과 더불어 12地支는 干支로 구성되어 오랜 기간 동안 동양인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60甲子는 干支의 陽과 陽의, 陰과 陰을 조합하여 구성된 것이다.

십이지에 얽힌 한국인의 정서를 보면 十二支라는 말은 다소 생소할지 몰라도 열두 띠라는 말은 한국인에게는 매우 친숙하다.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의 地支에 열두 동물의 이름을 따로 붙여 이르는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자연스레 “십이지=열두 띠=열두 동물”이라는 등식이 자리하고 있다. 십이지에 대한 관념은 동서양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십이지를 동물로 배속한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이집트, 멕시코정도이다[1]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간다. 숙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시간과 해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한국인은 자기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열두 동물 중에서 하나의 동물과 연관된 “띠”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된다. 생활 주변에서 뿌리 깊게 지닌 “띠”의 문화와 이에 대한 민속학적 관점에서 민화에서 나타난 십이지의 의미를 연구한다.

2. 선행연구 사례

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만태(2011)는 꿈의 나라에서 십이지에 얽힌 한국인의 정서는 민족의 보편적 정서이며,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썬법의 수가 열(10)을 감안할 때 십이지에 담긴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하였다[1]. 전영순(2001)은 서주 대전과 서동지전에서 쥐의 상징을 인간 세계에서의 쥐 같은 인간을 경계하는 연구를 하였고[2] 조현정(2009)은 한 일 설화 문화에서 왕이 까마귀와 쥐의 가르침에 따라 승려와 공주의 간통 현장을 목격한 과정을 적었다[3] 허균(2010)은 십이지 동물에 나타나는 회화와 감골 문에서 십이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전래된 십이지 미술은 장례문화와 함께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신라시대 뿌리내리는 과정을 연구 하였다[4] 김성문(2014)은 소 그림의 주제에서 고향과 자연에 대한 일종의 신앙적 차원에서 고향 회귀를 표현하며 소를 통하여 한국적 농경사회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소를 통하여 한국적 농경사회와 민족문화의 자생적 미학을 표현한바 있다[6]. 최양숙(1995)은 민화에 나타난 호랑이 그림에서 악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보았다[8.]. 최정미(2014)는 토끼를 형상화 한 주제에서 일본은 고양이를 복을 부르는 동물로 장식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9]. 永留久.惠(1990)는 대마도에서는 뱀을 해신으로 민간에서 신앙한다고 주장하였다[12] 김만태(2012)는 성수 신앙의 일환으로 복두칠성의 신앙 연구에서 제주도의 칠성 풀이는 칠성신 이라고 하는 뱀신의 존재를 주장했으며 제주도에만 전승되는 뱀 토템의 일환으로 보았다[13] 이와 같이 十二支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十二支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한국인의 의식에 담긴 띠에 대한 관념과 생활 속에 담긴 띠의 문화를 민속학적 측면으로 나타난 의미를 민화에서 나타난 표현과 十二支에 대한 한국의 민속의식과 문화를 정리 하고자 한다.

3. 그림에 나타난 십이지의 띠 동물

시간과 공간의 상징인 십이지, 즉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 등의 동물들을 그린 민화는 역신을 몰아내고 벽사 진경을 위한 민속에 얽힌 작품이다. 각 각의 열두 동물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3.1 쥐

전영순의 서대 주전(鼠大州傳)과 서동지 전(鼠同知

傳)의 연구에서 쥐의 소재 우화소설은 쥐의 동물적 상징성을 인간 세계에서 쥐와 같은 인간을 경계하고 있다. 쥐가 인간 생활에서 식량을 축내기 때문에 식량문제는 중심 모티브가 된다. 또한 비소한 쥐가 공신의 후예이기 때문에, 양반의 무위도식 성과 부정적인 인물로 쉽게 형상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2} 또한 한글 본 서동지 전의 이본간의 차이에서 공간적 배경을 분석한바 세창 서판본에서 “웅주 에 한산이 있으니 일흠은 구궁산 이라” 하고 영창서 판본은 “ 당 태종 시절 중국 웅주 땅 구궁산 ‘이라 하고 천태산 인본에서는 ’진시황 시절 천축산 만경대’라고 하여 중국의 오래전부터 전해진 우화 소설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현정의 ”한·일 설화문학 속에 나타난 佛敎思想 比較연구“ 『三國遺事』와 『今昔物語集』을 중심으로”의 연구에서 소자 왕은 10년(489)에 까마귀와 쥐의 가르침에 따라 궁궐에 들어가 거문고 집을 쓰니 ‘내전 분수승(內殿焚修僧)과 공주(왕비 또는 왕의 친척이나 궁녀)가 간통 하고 있어 처형하였다. [3]는 표현이 있어 여기에도 쥐가 나타나고 있다. 쥐는 우리나라 그림에서 어떻게 묘사되었을까?. 아쉽게도 전통 회화 속에서 쥐를 그린 그림을 찾기란 쉽지 않다. 동물을 의미 상징 형으로 다루는 민화에도 쥐 그림은 눈에 잘 띄지 않는데, 그 이유는 쥐의 모습이나 생태적 속성이 우리의 감수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쥐가 등장하는 드문 예로 申師任堂(1505~1551)의 <초충도>가 있다. <초충도>는 문자 그대로 풀과 벌레 등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제2폭에 수박, 나비와 함께 쥐가 그려졌는데, 쥐 두 마리가 수박을 파먹고 있는 장면을 포착하였다. <초충도> 속의 쥐는 상징적 의미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동물로 묘사된 것이다. [4]



Fig. 1. Joe chong do

3.2 소

김 성운 교수는 “고향 회귀의 노래”를 통하여 소 그림을 중심으로 소와 고향 정원은 고향의식을 추억하는 상(像)이며 소와 아이들 동심은 실향 또는 이상향에 대한 회귀본능의 상(像)이며 맑은 심상을 통해 고향의식을 증폭 시킨다 [5] 고하였다. 또한 소는 형이상학적 견지에서 볼 때 인간에게 매우 철학적인 동물이다. 동서고금의 화가들은 소 그림을 통해서 인간사와 자연의 연결, 자신의 정체성 표출, 소신과 의지의 웅변, 해학적 카타르시스를 창출하였다. 테마의 주요 유형은 고향의 향수, 동심, 모성애, 우정, 사랑, 놀이 등의 서정 유희 테마, 농사를 배경으로 한 농경과 휴식 테마, 민족혼 저항 분노 고통의 메타포와 소싸움에 나타난 이념투쟁 테마, 그리고 화가의 정신적 세계를 아우르는 사유 해학 테마 이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테마는 농촌과 자연을 토대로 발현되는 서정, 유희이고 이어서 사유, 해학 테마 부분으로 나타난다. 논경, 휴식의 테마 부분의 경우, 농우는 기계 문명 때문에 소의 고유 역할이 소멸되어 점차 사라지고 주로 동양화, 한국화의 범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념, 투우 테마 부분은 소의 공격성을 통한 투쟁심, 민족혼의 고취, 저항, 열정, 광기 등으로 나타난다. 사유, 해학 테마 부분은 소 그림을 통한 작가의 자아와 예술혼의 실현, 유머, 익살 등 자유분방한 동화적 힐링으로 치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하였다. 소가 전통 회화 속에서 그려질 때는 대개 현실적 효용 가치보다는 소의 성품이나 속성 등과 관련된 상징성에 더 큰 비중이 주어졌다.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된 그림이 <老子出關圖><牧童騎牛圖><牛圖> 등의 소 그림이다. <老子出關圖>는 중원은 이제 더 볼일이 없다고 생각한 노자는 검정소를 타고 서역으로 향했다. 함곡관(函谷關)을 지나다가 관문을 지키는 윤희(尹喜)라는 장수를 만나, 그가 하도 깨달음에 관한 글을 남겨 달라기에 노자는 5천 자"도덕경"을 주었다고 한다. 김두량(1696~1763)의 <牧童午睡圖>등이 유명하다. 소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을 “우도”라 하는데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를 그린 것, 송아지를 그린 것 등 종류가 다양하다. 화면의 분위기는 하나같이 고즈넉하고 평화롭다. 김시(1524~1593)의 <馱牛圖>와 김식(1579~1662)의 <枯木牛圖>등이 잘 알려져 있다 [4]. 조선 중기의 문인 화가인 김시는 조선시대에 소 그림을 처음으로 그린 화가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의 형태는 동남아시아의 물소와 같이 뿔이 옆으로 났고 또 소입이 X자처

림 모아진 게 특징이다. 그림 속의 소도 열은 먹을 바르거나 말거나 해 음영으로 몸체의 굴곡을 나타냈다. 윤곽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소 그림은 손자인 김식(金植)에게 그대로 전해진 이후로는 맥이 끊어진 것이다. 한편 이중섭(1916~1955)과 임규삼(1917~2008)의 소와 소년을 주제로 한 소 그림에서는 소가 자연을 상징하고 있고 소년은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와 소년을 주제로 한 그림들은 자연과 인간의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 고 하였다.



Fig. 2. Giukiga

雲甫 金基昶(1913~2001)의 1935년작 소년과 소(판화)는 차분하면서도 원색적인 면을 가진 색상을 차분하게 잘 그린 작품으로 붉은 노을에 집으로 향하는 소년과 소의 모습에 따뜻한 미소가 절로 나온다.



Fig. 3. Boys and cows

3.3 호랑이

민화에 나타난 호랑이 그림은 우리 고유의 민간신앙과 결부되어 사(邪)를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갖고 일반 평민들 사이에 유행된 실용화 내지는 생활화로서 인간의 궁극적인 신앙을 솔직하고 자유로운 표현양식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고 하였다. 호랑이를 그린 그림은 크게 감상용과 초복벽 사용으로 나뉜다. 초복벽 사용 그림은 주로 세시(歲時)에 그

려졌으며, 이들 그림 중 대표적인 것이 민화의 까치·호랑이 그림과 호랑이 부적 그림이다. 까치·호랑이 그림의 주요 도상은 소나무, 까치, 호랑이다. 까치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 다”는 말처럼 기쁨을 나타내고, 호랑이는 “보답 한다” “알린 다” 는 보(報)의 뜻을 나타낸다.



Fig. 4. Magpie and a tiger

호랑이 부적 그림으로는 삼재부적(三災符籙)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호랑이의 용맹성과 흉포함을 빌려 벽사 행위의 완성을 꾀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다. 부적 그림은 아니지만 작자 미상의 <猛虎圖>, 김홍도·강세황 합작의 <松下猛虎圖>, 고운(高雲1495~?)의 <松虎圖>등도 벽사의 의미가 담긴 그림이다. 또한 호랑이가 의미상 주체인 그림 중에 산신도가 있다. 산신도에서 엿드린 호랑이, 즉 복호(伏虎)의 상(像)은 산군자(山君子)로서 사려 깊은 호랑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선이 호랑이를 타고 가는 모습을 그린 <神仙騎虎圖>가 있고, 수원 팔달사 용화전 외벽의 호랑이 그림처럼 토끼가 불을 붙여준 담배를 피우는 인자한 모습의 호랑이를 그린 그림도 있다. [4]



Fig. 5. Pine trees and a tiger

3.4 토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 동물을 저마다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는 물고기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년 연하장이나 장식용 벽걸이에 많이 등장한다. 일본에서는 고양이가 복을 부르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각 가정 마다 손을 들어 복을 부르는 고양이 장식품을 하나씩 지니고 있다 [9] 십이지 중에서 네 번째 지지를 상징하는 토끼는 한국의 여러 설화에도 등장하는 매우 친근한 동물이다. 옛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계수나무 아래서 떡방아를 찧고 있다는 토끼를 떠올렸고, 이러한 생각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그런데 자칫 ‘달 속에 토끼가 살고 있다’는 발상은 우리만이 갖고 있다고 여기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일본인들도 달에 토끼가 살면서 떡방아를 찧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토끼야 토끼야 무얼 보고 뛰느냐, 보름달 둥근달 보면서 댄다. “라는 동요가 있다. 이처럼 ‘달 속에 사는 토끼’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 널리 퍼져있다. 이것은 민간의식이나 설화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고분벽화에도 나타나고 있다 [10] 민화에서는 토끼 두 마리가 달을 배경으로 방아를 찧고 있는 모습이나 풀밭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다. 전통 회화 중에서는 마군후(馬君厚)가 그린 <쌍 토끼雙兔圖>가 전 해 지는데, 토끼 두 마리가 서로 몸을 의지한 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다. 화폭에 쓰인 화제(畫題)의 내용을 보면 화의(畫意)가 읽힌다. [4]고 하였다.



Fig. 6. Pair of rabbits

3.5 용

용은 상상속의 동물로서 권위와 조화(造化)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물, 혹은 상상 동물이라는 개념보다 실제 신비스러움과 초능력을 가진 동물로서 무수한 관념과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며 더욱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앙적 대상, 예술적 형상물로서 집단 의식 속에 뿌리 깊이 살아 있다. 동양의 용은 오복을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수호신(守護神)의 기능과 제왕의 상징이며 불교에서는 불법을 지키는 외호 신(外護神)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수신(水神)으로서 농수산물의 풍요와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 이므로, 용의 형태와 성격 및 종류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천태만화(千態萬化)의 상이며 능수 능변(能手能辯)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10] 우리의 고대 신앙인 무교(巫敎)와 불교가 융합하면서 용에 관한 수많은 신화, 설화, 전설이 생겨나고, 민속과 민간신앙, 각종 지명에 이르기까지 의리 생활과 의식구조에 가장 밀접하고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다. [10]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주제는 거의 사신도(四神圖)로 채워져 있다. 즉 靑龍, 白虎, 朱雀, 玄武라는 상징적 동물을 동, 서, 남, 북에 배치해 그려 넣음으로써 우주공간을 보호케 하였다. 특히 오행사상(五行思想)으로서 방위 신앙(方位神仰)으로 춘, 하, 추, 동 4계절과 동, 서, 남, 북의 방위를 상징하는 신수(神獸)로서 두 가지 용이 등장하는데, 동쪽과 봄을 상징하는 청룡(靑龍)과 중앙을 상징하는 황룡(黃龍)이 등장한다. 따라서 도시의 계획, 생활 거주지, 음택의 조성에서 오행의 원리에 맞게 이룩해 왔으며, 이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배해 왔다. [10] <운룡도>는 19세기 전 기 용의 그림으로 대개 기우제(祈雨祭)에 쓰이던 용신상(龍神像)이다. 특정지역의 四方을 지키는 四神 중의 의미가 아닌 기우제의 용신상은 이미 <삼국사기> 眞平王때 화용(畫龍)을 만들어 제사 지냈다는 기록으로 그 역사가 오래이다 [10] 한편 용은 무화(巫畵)에서 용궁에 사는 용왕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용왕도는 대개 관을 쓰고 도포를 입고 여의주를 손에 든 채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의 노인과 그 아래의 인물을 휘감고 있는 용이 그려진다. 전통 회화의 용 그림 중 대표적인 것으로 김응환(金應煥 1742~1789)의 <운룡도(雲龍圖)>, 최복의 <의룡도(醫龍圖)>가 있고 무화와 민화 중에도 용 그림이 많다. [4]



Fig. 7. Ulyong do

3.6 뱀

뱀띠는 부드럽으면서도 지혜가 넘친다. 힘들이지 않고 여유롭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은 뱀띠의 최대 특징이다. 자신의 사고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한번 결심한 일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리고, 머리가 좋고 배우려는 마음이 강하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 거리낌이 없으며,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 지도자나, 예술 관련 천재가 많다 [11] 永留久惠 [12]는 일본의 海神은 「와따쯔미」라고 하는데, 이 「와따 ㄱㅈ」는 韓國語「바다」와 같은 뜻인 바다를 나타내며 「쯔」는 조사이고 「미」는 뱀을 뜻 한다.라고 설명하고 日本語 「와따쯔미」에 대응되는 한국의 고유명사로서의 海神에 대하여 조연을 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가지붕이 산재한 농촌에서는 집에서 자주 뱀이 나타났으며 터 의 神으로 믿고 있었다. 이를 터주신 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뱀의 신이 제주도에서 보인다. 김만태[4] 성수 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제주도의 큰 굿인 “각도 비님”안에는 “칠성신”이라 불리는 뱀신(蛇神)에 대한 제의가 있다. 이 칠성신의 기능은 본토의 구렁이 엽 신앙에 나오는 엽신의 직능-재부(財富) 주관-과 일치한다. 이때 구연되는 <칠성 풀이>는 제주도에만 전승되며 뱀 토템의 일환인 뱀신 으로서의 칠성신에 대한 신화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뱀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칠성 본풀이>는 제주도에서 큰 굿 때 행해지는 각도비님이란 제차, 칠성신(뱀신)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집에서 다른 곳을 할 때 칠성신을 위하는 제차, 칠성(뱀)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당에서 제의를 올릴 때 등에 불리어진다. (칠성 본풀이)의 다음과 같다. 장 설용과 송 씨 부인이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점쟁이에게 문복을 한 후, 집 뒷마당에 칠성단을 마련해 칠성제를 드리고 아기씨를 낳는다.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중(僧)이 일곱 살 난 아기씨를 잉태시킨다. 이 사실을 안 부부는 무쇠 상자 안에서 아기씨를 앉히고 야광주(夜光珠)를 물려 바다에 띄워 보낸다. 무쇠 상자는 제주도 함덕리 바닷가에 닿아 잠수와 어부에게 발견된다. 뱀의 모습을 한 아기씨와 일곱 아기를 보고 잠수와 어부는 징그럽다고 내던진다. 이일로 잠수와 어부는 병이 나서 사경을 헤매다가 칠성 새남을 해서 병이 낫고 큰 부자가 된다. 이들 어미 뱀과 일곱 자식 뱀을 모시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꺾박하는 사람들은 병이 난다. 이후 뱀들은 송 씨 집안에 들어가 조상신으로 섬김을 받고 송 씨 집안이 큰 부자가 되게 해준다. 어미 뱀은 안 칠성으로 집안 광(고방), 일곱째 자식 뱀은 박 칠성으로 집 뒷마당에 좌정하여 곡물을 지키고 집안의 부를 일으키는 신이 된다. 나머지는 추수지기, 형방지기, 옥(獄) 지키, 과일(果園) 지키, 창고지기, 관청지기 등으로 각각 좌정한다. (칠성 본풀이)에서 칠성신이란 어미 뱀과 일곱 자식 뱀을 지칭한다. 이들이 칠성신으로 불리게 된 것은 북두칠성이 어미 뱀(아기씨)의 출생에 관여했기 때문이거나 자식 뱀의 수가 일곱인 것과 상관이 있다. 신화 형성 집단은 하늘의 북두칠성과 지상의 뱀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묶었는데, 이것은 곧 뱀을 신성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이전부터 있어 온 북두칠성의 신성한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허물을 벗고 많은 알을 낳는 뱀의 생태적 속성상 뱀이 갖는 다양한 상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산과 풍요, 재생과 불사의 힘이다. 뱀의 이러한 달 동물적 특성은 뱀을 풍 농신과 부신으로 인식하게 한다. 나아가 뱀의 신성성을 배가하기 위해 북두칠성과 연계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일곱”이란 숫자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뱀을 칠성신으로 관념화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두칠성에 대한 신성성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므로 제주도 무속 제의에서 칠성신은 뱀신 이외에 북두칠성을 뜻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속명적으로 북두칠성의 수호를 타고난 사람들의 수명장수와 복을 빌기 위하여 칠성제(七星祭)를 지내는데, 이때 그 제의 대상으로 북두칠성을 상징화한 칠원성군(七星星君)을 모신다. 이 경우 뱀 신으로 관념 되는 칠성신과 “칠성”이란 이름으로 불리면서도 엄격히 구별 된다 [13]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서 永留久惠의 日本語 「와따쯔미」에 대응되는 한국의 고유명사로

서의 海神에 대하여 그 실체가 무엇 인가?라고 했는데, 이는 제주도과 대마(對馬)의 지리적 접근성과 바다라는 동일 환경 은 아닐 찌라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제주도의 뱀 신과 대마(對馬)의 일본 海神「와따쓰미」는 동일 신앙의 주체라고 주장할 수 가 있다. 이러한 추론은 본 본문 이외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서 永留久惠의 일본 海神의 한국 학자들에게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가름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뱀 신을 제외하면 칠성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성신(星神)이다. 칠성은 특별한 신체가 없이 정화수를 떠놓고 비손 하며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역에 따라 칠성단지, 칠성판, 칠성 보자기, 명 다리, 건 궁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다. 칠성을 모시는 곳은 주로 장독대나 산에 모시는 경우도 많다. [13] 내륙의 경우 옛날 어머니들이 집에 뱀이 나타나면 머리를 가위로 약간 베어 태우면서 뱀을 쫓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타난 뱀이 터주신 으로 살생을 하지 않았다.

3.7 말

유목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혹독한 자연환경과 장기적인 정복활동에서 말과 몽고 유목민은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원시 유목 수렵 경제활동과 잔혹했던 민족부족간의 전쟁에 있어, 대개의 집회, 결혼, 오락, 교통 등 중요한 활동은 말과 뿔 수 없었다. 그들은 말 잔등 위에서, 말에 앉아 사방에서 바람을 맞으며 신천지를 개척했다. 준마는 영웅을 탄생시켰고 영웅은 준마에 의지하여 살아갔다. 북방 유목사회의 초기단계에서 고대 샤머니즘의 의식 가운데 말 숭배와 영혼 숭배 그리고 천신 숭배가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4] 몽고 민족의 풍마기(風馬旗)는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생명의 죽음과 생명의 탄생은 모두 綠馬와 風馬에 충분히 드러난다. 祿馬風旗는 오랜 역사의 몽고 민족 원시적 영혼 신앙으로 天神信仰의 표현이다. 몽고 민족이 추구하는 생명, 생명을 낳고 낳는 끊임없는 상징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라고 邢莉는 논고한 바가 있다. 말의 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경주 천마총에 서서 출토된 <천마도(天馬圖)>이다. 이 유물은 영매자로, 또는 조상신의 탈것으로 애용되었던 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말안장 양쪽에 늘어뜨린 목제 장니(障泥) 표면에 장식된 이 말 그림은 회화적 표현이 매우 뛰어나다. 고구려 벽화 고분이나 고려 말 공민왕(恭愍王)의 <천산대렵도(天山大獵圖)>에도 말이 등장한다.



Fig. 8. Cheonsandaeryeoptto

조선시대 윤두서(尹斗緒1668~1715)의 <유하 백마도(柳下白馬圖)>윤덕희(尹德熙1685~1776)의 <미인 기마도(美人騎馬圖)>, <임계 세마도(臨溪洗馬圖)>등도 유명하다. [4]



Fig. 9. UhaBaengma do



Fig. 10. Mounted a beauty do

3.8 양

祥은 귀심을 뜻하는 示에 羊 이 합쳐진 것으로 상서로움을 나타내는데, 이는 고대에 양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제사 지내던 것과 관련이 있다. 좋은 羊에 言이 돌 붙

어 어우러진 것으로 양이 선량함의 표상이 되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의 온순한 성격으로 인해 겁이 많거나 약자, 미비한 존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온순한 양은 늘 희생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나운 동물과 대조를 이뤄 약자로 상징하기도 한다. [15] 양의 그림에 대한 현존 작품으로 공민왕의 <이양도(二羊圖)>와 작자 미상의 <산양도(山羊圖)>가 있고, 도자기로는 원주 법천리 고분 출토 <청자 양(靑委羊)> 이 있다. [4]

3.9 원숭이

일본의 민화에서는 원숭이의 보물에 관한 이야기가 유심히 많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단절감이 없었던 민담의 세계에서 보물로서 은혜를 갚은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더불어 원숭이를 신성시 여겼던 고대 일본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도 한몫을 차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원숭이를 보물(猿の宝)과 같은 이야기는 신(申)이 지니는 십이지의 상징성이 금기(金氣)를 띠고 있기 때문에 파생될 수 있으며, 여기에 원숭이를 신성하게 생각했던 고대 일본인들의 사고가 반영되어 생겨난 이야기이다. 또한 여기에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 짓지 않는 고대인들의 자연관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동물에게도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부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친화적인 삶이 나타난다. [4] 고 하였다.



Fig. 11. Zodiacal monkey of a sketchbook



Fig. 12. <Sansueongmojeolji>

우리나라의 원숭이 그림으로는 장승업(張承業1843~1897)의 <산수 영모 절지>과 윤엄(尹儼1536~1581)의 원록도 <猿鹿圖>등 몇 작품이 전하고 있으며 작자와 연도가 미상인 조선 후기로 추정되는 민회로 <안 하이 갑도>는 원숭이를 단독으로 그린 것으로 높은 벼슬자리에 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에서는 원숭이를 가리킬 때 ‘원’ 자를 쓰지만, 중국에서는 제후를 뜻하는 ‘후’ 자를 쓴다. 원숭이를 뜻 하는 한자 후(猴)의 중국식 발음과, 제후(諸侯)를 뜻하는 후(侯)의 발음이 모두 후(hou)로서 같기 때문이다 [4]라 고 하였다 원숭이와 함께 갈대를 쥔 게가 있다.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라는 염원을 담은 그림이다. 계도 벼슬길에 오른다는 상징인데, 갑각류의 ‘갑’ 자가 과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갑’ 자와 소리가 같기 때문이다. 원숭이가 높은 벼슬을 의미하는 것이다.



Fig. 13. Wollok do



Fig. 14. Anhaegapto

3.10 닭

십이지신의 닭은 얼굴은 짐승이지만 몸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 있으며, 손에는 무기 등을 동물마다 다르게 지니고 있으며, 역동적이고 강인한 자세로 취하고 있다. 이처럼 십이지신상 속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기원을 담아 인간과 동물을 함께 결합하여 수호신(守護神)으로 그려 넣으면서 교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 [17] 고구려 벽화 속에서의 닭 그림은 닭이 울면 곧 해가 뜬다. 그래서 해가 떠오를 때, 천하(天下)의 닭들은 모두 천계(天鷄)를 따라 운라고 했다. 천계는 하늘을 상징하며, 닭은 날개가 있지만 땅에 사니,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보았다. [18] 고구려 5~6세기의 벽화 무용총(舞踊塚), 쌍영총(雙楹塚)과 7세기 강서중묘(江西中墓)의 사신도의 <주작도> 등 고구려 고분 벽화의 무덤에는 주작도가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저마다의 특성을 지니고, 인간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하늘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길조로서 의미를 담고 있다 [17] 풍속화 속의 닭의 그림으로는 김득신(金得臣)의 <야묘도추>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여유로운 한 낮에 어미 닭이 갓 태어난 병아리를 거느리고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도둑고양이가 병아리 한 마리를 가로채고 도망치는 모습과 어미 닭이 날개를 퍼덕이며 고양이 뒤를 쫓고 있으며, 나머지 병아리들은 숨는 곳을 찾느라 혼비백산 흩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옆 주인 영감은 긴 담배 대를 쭈뼌어 병아리 한 마리를 물고 달아나는 도둑고양이를 쫓으려다 마루 위에 떨어지고 있고 이를 본 안방마님이 크게 놀라며 황급히 달려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다. [17]



Fig. 15. Yamyodochu

<추수 타작>은 사람들이 바쁘게 추수하는데 여유롭고 한가로운 암탉과 수탉들이 추수 쌀을 쪄아 먹는 모습이며 <주막거리>는 닭들이 한가롭게 모이를 쪄아 먹는

모습과 농부가 소를 몰고 주막 주인에게 술값을 치르려는 모습과 열심히 일하는 농부와 선비 차림의 일행이 쉬는 주막의 모습이다. 김홍도의 <평생도 4>는 돌 찬치의 모습과 닭 두 마리가 여유롭게 돌아다니며 편하게 엎드려있는 개의 모습이다. <닭과 맨드라미>는 민화 속에 맨드라미는 닭 벗과 모습이 비슷하여 관위에 관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최고의 입신출세를 의미한다. [17] 한편 이 중섭의 부부 시리즈 닭 그림들은 닭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닭의 해부학적인 특징들로 요약된 양식화가 두드러진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응축된 에너지를 살아있는 생명체인 닭을 통해 생동감 있게 선묘로 표현 하였다. 선묘가 단순히 대상의 윤곽선이거나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살아있는 생명감을 지닌 다. [17] 그중 수탉은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용맹스러움과 헌신, 그리고 암탉은 알을 품거나 병아리를 키우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듯이 모성애가 느껴지는 따뜻함과 부지런함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속에 담긴 닭의 상징적 의미로는 천지창조와 위인 탄생, 밝은 세상에 대한 희망, 영혼의 소리, 삶의 깨달음,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살림 밀천과 보신의 대상, 강인함과 적극성, 차선책, 잡귀나 요물 등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징적 의미가 적용되어진 닭과 관련한 우리의 전통적 풍습과 문화유산으로는, 십이지 신, 고구려 벽화, 풍속화, 민화 등이 있다. 이 중섭의 닭의 그림은 개인적인 애절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훌륭한 예술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그의 작품세계에 끼친 영향까지도 가늠할 수 있다 [17] 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닭은 우리 인류의 삶과 동행하였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닭들도 인류와 공존하며 함께 갈 것이다.

3.11 개

민족마다 개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서 충실한 친구로 생각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민족도 있다. 한국과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개를 좋아한다. 한국에서 개를 소재로 한 속담은 한국 민족의 참다운 특징을 나타낸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는 속담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혼한 것 일지라도 막상 꼭 필요한 데가 있어 찾으면 없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 사람만의 표현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의 독특한 민족성의 표현이기도 하다[18] 개는 사람과 가장 친한 동물로, 항상 사람 주변에 있으면서 한 식구처럼 귀여움을 받아 왔

다. 기질이 영리하고 의리가 강하여 충견(忠犬)과 의견(義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민간에서 벽사의 능력을 가진 동물로 인식된 것은, 개의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여 미세한 냄새와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무속의 저승 설화에서는 개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메신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개의 벽사용 그림은 민화와 회화에서 공히 나타나는데, 개를 단독으로 그리는 것이 보통이다. 김두량의<굽는개>, 이희영(李喜英?~1801)의<견도>는 한 마리의 개를 그린 그림이다. 이암(李巖1499~?)의 <화조구자도(花鳥狗子圖)>, <모견도(母犬圖)>가 그 대표적이다.



Fig. 16. Black dog



Fig. 17. Mogyeondo

나무와 개를 함께 그린 그림을 벽사용 그림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4]

3.12 돼지

삼국시대 기록을 보면 돼지는 하늘에 바치는 신성한 제물로 이를 위해 돼지만을 전담해서 키우는 관리가 있

었다고 하여, 수도와 왕비를 점지하는 신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돼지는 신의 뜻을 전달하는 신성한 존재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돼지꿈을 꾸게 되면 복권을 구입한다. 복권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돼지가 복을 상징한다고 믿어온 속신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그럴 만큼 돼지가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적 동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재물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것과는 달리 돼지의 일상적인 행동을 보고 만들어낸 탐욕과 게으름, 그리고 지지분함의 상징이다. 특히 돼지를 비속하게 표현하는 내용은 대개 속담으로 만들어져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빈정거릴 때 사용된다. 이렇듯 돼지는 우리 민족에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극명하게 대립된 모습을 보여주는 동물이다. [19] 전통회화에서 돼지 그림은 찾아보기 어렵다. 돼지 그림의 경우 해방 이후에 그려진 소위 이발소 그림에서 나타나기는 한다. 대개 수많은 새끼를 거느린 암돼지를 그리고 있는데, 사업이 번창하고 재산이 불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4. 십이지 동물의 상징성

십이지 동물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그중에서 십이지 문화사의 허균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4.1 쥐

쥐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지진과 풍랑 등 재난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예지(叡智)의 동물로 여겼다. 먹이를 부지런하게 찾아 한 곳에 모으는 습벽 때문에 부자의 상징과도 연결되었다. 또한 한꺼번에 10여 마리나 되는 새끼를 낳는 생식력 때문에 풍요의 상징으로 여긴다. 쥐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는 은밀함과 왜소한 몸집 때문에 불순분자나 간신배를 뜻하는 동물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4.2 소

한국 문화에 등장하는 소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풍요·외로움·자애·여유·은일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 전통적으로 소는 농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한 가족처럼 취급되는 동물이었다. 농사일에 노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송 수단으로써 큰 몫도 해냈다. 소의 이러한 효용성은 근면·성실·인내심과 책임감등 긍정적인 의미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긴장감이나 성급함을 찾아볼 수 없는 여유로운 소의 자태는 흔히 은밀 자에 비유되었다.

4.3 호랑이

호랑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닌다. 호환(虎患)이라는 말이 있듯이 호랑이는 재앙을 몰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그의 용맹성은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상징으로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수(神獸)의 신령스러운 힘으로 인식되었다.

4.4 토끼

민담이나 설화 속에서의 토끼는 약하지만 민첩하고 영특한 동물로 묘사된다. 또한 사람들은 달과 토끼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다. 토끼가 산다는 달의 만월 주기가 여성의 생리 주기와 유사하고, 해의 양적(陽的)인 속성과 대비되는 달의 음적(陰的)인 속성을 여성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4.5 용

용은 십이지 동물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이다. 봉황, 기린, 거북과 함께 사령(四靈)의 하나인 용은 실존하는 동물들의 장점을 두루 갖추었고, 무궁무진한 조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용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태어났지만 인간 생활의 여러 방면에 깊이 관여했다. 용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며, 땅과 하늘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런 능력 때문에 용은 민간에서 풍농과 풍어를 가져다주는 영물로 신앙되었다

4.6 뱀

뱀은 현실에 있어서는 공포와 혐오의 대상, 또는 흉물로 배척되었다. 그러나 민간신앙 속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신앙되었고, 관념 속에서는 영생과 다산, 다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겨울에 자취를 감추었다가 봄에 다시 땅에서 나와 허물을 벗고 성장하는 뱀의 끈질긴 생명력은 치유·재생·영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이

러한 인식은 뱀을 남성의 양기와 회춘을 돕는 보양식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또한 자신의 상징성은 많은 재물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업신(業神)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4.7 말

말이 긍정적인 의미를 얻게 된 것은 건강한 생동감, 활발한 운동성, 빠른 속도감에 기인한다. 말의 생동감과 역동성은 죽은 자의 영혼을 천상으로 인도하는 영매자(靈媒者), 또는 하늘의 사신 역할을 하는 동물로서 상징성을 얻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편 오르는 말은 강한 양성(陽性)이라는 점에서 액이나 병마를 쫓는 방편으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신앙되기도 했다.

4.8 양

한자의 선(善), 의(義), 미(美), 상(祥) 글자에 양(羊)자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양은 예로부터 선하고 의롭고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었다. 양은 자기 희생으로 인간에게 큰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졌는데, 그것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양을 많이 사용한 것에 연유한다

4.9 원숭이

원숭이는 동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많이 닮은 동물로, 피와 재주가 많고 흉내를 잘 내는 동물이다. 그러나 피와 재주가 많다는 점이 오히려 부정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원숭이가 서식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숭이에 대한 관념은 전설이나 설화 등 간접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4.10 닭

민속에서 닭은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상서롭고 신비로운 길조로 통한다. 옛사람들은 닭이 울면 어둠이 걷히고 동시에 여러 잡귀들도 물러간다고 믿었기에 닭을 주력(呪力)을 가진 동물로 인식하였다. 어린 시절 밤에 변을 보면 한 밤중에 닭장에 나가서 닭에게 사람은 닭과 같지 않다. 라면서 비는 풍습이 있었다.

4.11 개

개는 사람과 가장 친한 동물로, 항상 사람 주변에 있으면서 한 식구처럼 귀여움을 받아 왔다. 기질이 영리하고 의리가 강하여 충견(忠犬) 의견(義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민간에서 개가 벽사(辟邪)의 능력을

가진 동물로 인식 된 것은, 개의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여 미세한 냄새와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무속의 저승 설화에서는 개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메신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4.12 돼 지

민속에서는 돼지가 재산과 복의 근원이며 집 안의 수호신이라는 관념이 강하다. 돼지꿈은 길몽으로 해석하고, 장사꾼들이 정월 상해일(上亥日)에 가게 문을 열며, 돼지 그림을 부적처럼 거는 풍속 등은 모두 돼지에 관한 이런 관념을 배경으로 한다. 돼지는 신화에서 신통력을 지닌 동물, 제의(祭儀)의 희생(犧牲), 재산이나 복의 근원, 집안의 재신(財神)을 상징하는 등 그 의미가 다양하다. 하지만 속담에서는 탐욕스럽고, 더럽고, 게으른 동물로 그려지기도 한다. [4] 인간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소원해지는 열두 동물은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함께 살아간다. 가기 동물의 습성과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과 열두 동물의 상관관계는 다자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김만태는 “십이지(十二支) 상호작용 관계로서 충(衝)·형(刑)에 관한 근원 고찰”에서, ‘쥐띠와 양띠, 소띠와 말띠, 범띠와 닭띠, 토끼띠와 원숭이띠, 용띠와 돼지띠, 뱀띠와 개띠가 혼인하면 부부가 서로 원수기간이 되어 평생 불화하며 심지어 생이별이나 사별까지 한다고 여겨 궁합에서 매우 꺼리는 풍속이 지금도 향간에 성행 한다. 일반적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열두 동물의 상호작용 관계와 이를 둘러싼 길흉 관념은 오래전부터 한·중·일 등 동아시아 문화권의 민속신앙과 술수문화에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한다고 사료 됩니다.

4. 결 론

열두 동물과 관련된 문화는 현대에도 우리의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십이지(十二支), 즉 열두 동물에 관한 쓰임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띠

면서 존재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친근하고 활용되어지는 동물을 십이지의 대상체로 삼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쌓인 삶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십이지 동물들의 상징성에서 보면 동물의 습성이 인간의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 인류와 함께 그들의 삶을 공유한 흔적의 결과라고 보인다. 그리고 동물 간의 상호 이해관계는 곧 인간의 관계 설정에도 그 영향을 미쳐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호랑이와 까치의 그림에서 인간의 안전과 새로운 희망 그리고 악을 막아주는 상징으로 십이지 동물들은 그림으로 태어나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게된다. 소개된 각종의 그림은 동물과 인간이 함께 희 노 애 락을 공유하며 발전 되어 왔다. 민화 속에서의 열두 동물들의 상징적 의미는 그들의 습성, 성격, 습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 하게 되었다. 따라서 열두 동물과 인간의 공유 관계를 더욱 연구 발전시켜 인류의 삶의 가치와 풍요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본고의 수고로움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계속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제안이 있다면 현재 예술분야에서 십이지의 도상 화 또는 조각, 상표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십이지 민화를 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 에 다양화를 추구하는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열두 동물과 관련한 생활화 세속화 되는 세시풍속이나 민속신앙을 일회성이 아니고 생활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적 창출의 접목이 시도 되어야 한다. 현재 예술 산업 분야에서 십이지의 도상 화 또는 조각, 상표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십이지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고 열두 동물에 대한 의미를 생활 속의 다양한 부분에 접목 할 수 있는 문화 산업으로의 융합이 요구된다면 전통사회의 세시놀이에서 벗어나 아시아권의 문화적 공동체가 형성되며 따라서 문화산업의 공동 크러스터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References

- [1] kin,Man-Tae, Seoul, 2011, *During the Pendency of Action 21.*,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ct, 2011), pp.80
- [2] Jeon Young Soon, Seoul, 2001, “*Study on the novel of tales as material of ‘Rat’*”, Domestic Master of Degree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Sogang University, pp.87

- [3] Cho Hyeong Jeong, Seoul, 2009, “Comparative study of buddhism shown in the Korean & Japanese tales. Focusing o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and past and present story collection.”, Domestic Master of Degree in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pp.6.
- [4] Heo Gyun, Paju, 2010, *The Culural History of 12 Chinese Zodiac*. Dolbaege, pp.52~54, 54~55, 56, 57, 58, 60, 51~66, 62, 63.
- [5] Kim Seong Un, Seoul, 2014, “A Study of Realization of the Beauty of Korea through Bull Painting and Nostalgia -Focusing on the Bull Painting Titled “The Homecoming So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cation Design Vol. 22, Single Issue, pp.1.
- [6] Kim Seong Un, Seoul, 2014, “Study on Types of Cow Paintings by Theme”, Korea Science & Art Forum, pp.57.
- [7] Yoon Ji Eun, Seoul, 2006, “Study on the Depiction of Oxen in Westernized Modern Korean Paintings”, Domestic Master of Degree i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p.4.
- [8] Choi Myeong Sook, Korea, 1995, “Study on Tiger Painting Shown in Folk Painting”, Domestic Master of Degree in the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pp.80.
- [9] Choi Jeong Mi, Korea, 2014, “Study on Ceramic Expression as a Motive of Rabbit Image”, Domestic Master of Degree in th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pp.5~6.
- [9] Yeom Won Hee, Korea, 2007, “Study On the Symbolism of Rabbit On the Moon”, Gohwang Collection of Dissertations, Chapter. 41,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p.35.
- [10] Park So Bin, Korea, 1996, “Study On Symbolism & Formativeness of Dragon”, Domestic Master of Degree in th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p.1, 10, 25, 54.
- [11] Wu Su Shan, Korea, 2013, “A study on the three-dimensional ring design of the 12 Chinese zodiac pictographic characters”, Domestic Master of Degree in the Design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pp.16.
- [12] Nagatome Hisae, Park Jeon Yeol, Korea, 1990, “Japanese gods and their Origins in Tushima island”, Korea Folk Lore of Korea Folk Lore Association Vol. 23(Sep 23, 1990), pp.241.
- [13] Kim Man Tae, Korea, 2012, “A Study on the Patterns of Religious Manifestations of the Big Dipper as a Constellation Faith,”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59(Sep, 2012), Korean Study Institute of Yonsei University, pp.157~158, pp.161.
- [14] Xing Li, Korea, 1997, “Worship of Horse By Mongolian People”. Korea Folk Lore of Korea Folk Lore Association Vol.29 (Dec, 1997), pp.78.
- [15] Kyeong Seo Geun, Korea, 2009, “Investigation of 12 Chinese Zodiac Animals Shown in the Annual Customs”, Domestic Master of Degree in the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pp.76.
- [16] Song Young Sook, Korea, 2011, “A Study on 12 Chinese Zodiac Animals in the Japanese Folklore”, Domestic Master of Degree in the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p.178.
- [17] Kim Ji Hyeon, Korea, 2009, “A Study on the Chicken Painting By Lee Jung Seop”, Domestic master of Degr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p.41~42.14~29.39.23~29.30.32pp.
- [18] LING Li Na, Korea, 2009, “A Study on the Compared Proverbs as the Material of dog & Cat in Korea & China”, Domestic master of degree i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44.
- [19] Kim Jong Dae, Korea, 2000, “The symbol of folklore about Pigs, an affirmative concept and a negative concept”, Chungang Folk Lore Vol. 13, Korean Folklore Research Institute of Chungang University, p.63.

이 종 관(Jong kwan Lee)

[정회원]



- 2006년 6월 : 전 충청도청근무(서기관)
- 2006년 9월 : 녹조근정훈장수상
- 1996년 7월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2006년 2월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수료
- 2014년 2월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졸업(교육학박사)
- 2014년 7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박사과정
- 2016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책임연구원

<관심분야>

민속문화, 향토문화, 교육학, 동양철학